

특집

2015년 건설경기 전망

내국인 숙련 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임금 상승세 지속될 전망

-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제 및 내국인 청년층 진입 촉진책 마련 등 고심해야 -

심 규 범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gbshim@cerik.re.kr

건설 투자 및 취업자 추이

20 14년 상반기의 건설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93.98조원(2010년 연쇄가격 기준)이고, 하반기에는 2.0% 증가한 108.5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 취업자 수 역시 올해 들어 4월을 제외하고는 2013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전체 산업의 취업자 중 건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2월 6.7%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미미한 회복세를 보여 7%대를 겨우 넘어선 모습이다. 올해의 전년 동기 대비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가율은 건설투자 증가율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양자의 연관성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건설

건설업 취업자 수 및 건설투자 추이

(단위 : 천명, %, 조원)

항목	시기	2012	2013	2014								
				1	2	3	4	5	6	7	8	9
취업자	전(全) 산업	24,681	25,066	24,759	24,819	25,163	25,684	25,811	25,875	25,979	25,885	25,917
	건설업	1,773	1,754	1,688	1,663	1,699	1,775	1,821	1,842	1,849	1,810	1,839
	건설업 비중	7.2	7.0	6.8	6.7	6.8	6.9	7.1	7.1	7.1	7.0	7.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3	-1.1	1.0	3.7	0.4	-0.2	0.8	1.3	3.2	3.7	2.9
건설 투자 (2010년 연쇄가격)		186.11	198.61	93.98(상반기)						108.55(하반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3.9	6.7	1.9(상반기)						2.0(하반기)		

주 : 2014년 건설투자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각 연도 각 월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건설 기능인력의 주요 직종별 임금 동향(하루 8시간 기준)

직종명	직종별 8시간 기준 임금 추이								전년 동기비 증감 (2014.5/2013.5)	
	2010.9	2011.5	2011.9	2012.5	2012.9	2013.5	2013.9	2014.5	증감액	증감률
보통 인부	72,415	74,008	75,608	80,732	81,443	83,975	84,166	86,686	2,711	3.2
숙련공 평균	101,314	103,785	107,563	112,435	114,885	122,911	123,076	129,464	6,553	5.3
형틀목공	104,308	105,805	114,466	107,506	115,082	132,235	132,373	143,562	11,327	8.6
건축목공	99,722	106,641	104,682	113,281	113,962	123,200	123,567	133,609	10,409	8.4
비계공	120,681	123,972	126,924	136,740	141,535	150,673	149,852	153,958	3,285	2.2
조적공	102,200	104,754	109,297	117,597	116,217	120,532	122,344	119,163	-1,369	-1.1
미장공	100,562	103,210	107,403	112,225	115,095	123,123	129,924	135,353	12,230	9.9
방수공	82,178	77,442	81,612	88,799	87,417	92,902	91,971	98,523	5,621	6.1
타일공	105,611	110,585	115,534	120,603	123,611	130,375	126,339	132,287	1,912	1.5
콘크리트공	103,765	102,951	107,477	111,559	117,989	123,616	125,217	131,474	7,858	6.4
배관공	92,988	94,293	95,187	103,242	104,844	112,679	108,729	117,068	4,389	3.9
도장공	93,119	100,929	105,730	106,840	109,720	114,929	115,265	121,900	6,971	6.1
철근공	109,325	111,058	114,884	118,389	118,264	127,758	128,252	137,204	9,446	7.4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현장에 정부가 통제하지 못하는 불법 체류자 또는 불법 취업자가 많고(2013년에 총 25만명 중 합법은 6만명으로 추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들이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일부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건설 투자와 건설업 취업자 수의 추이가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상반기 기능 인력 임금 큰 폭 상승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하루 8시간 환산 임금)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건설 근로자의 주요 직종별 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는 상반기의 건설투자 증가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보다 큰 원인은 건설 기능인력의 고령화로 표출되는 인력 풀의 약화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 임금 조사는 주로 한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력 풀이 약화되면서 내국인 숙련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호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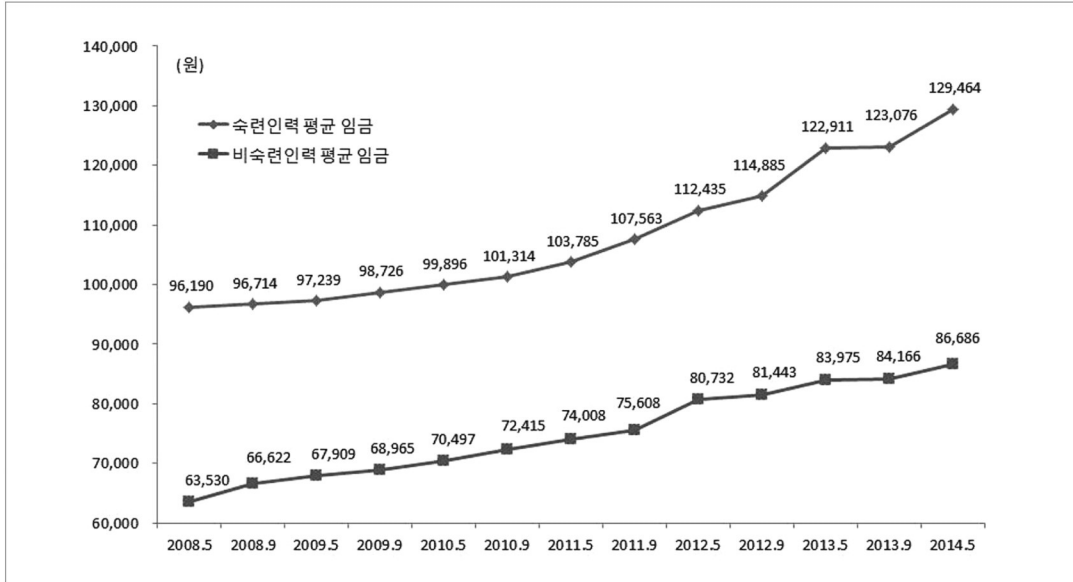
2014년 5월 시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비숙련 인력인 보통 인부의 임금은 8만 6,686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고, 11개 주요 직종이 포함된 숙련 인력의 평균 임금은 12만 9,464원으로 5.3% 상승했다.

주요 직종별로 살펴보면 2014년 5월 현재 일일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비계공(15만 3,958원)이고, 그 뒤를 형틀목공(14만 3,562원), 철근공(13만 7,204원), 미장공(13만 5,353원), 건축목공(13만 3,609원), 타일공(13만 2,287원), 콘크리트공(13만 1,474원) 등이 따르고 있다. 1년 간의 직종별 일일 임금 증감을 살펴보면 미장공의 경우 9.9%가 올라

특집

2015년 건설경기 전망

숙련 인력 및 비숙련 인력의 임금 추이(하루 8시간 기준)



자료 : 대한건설협회, 각 연도.

1만 2,230원이 올랐다. 형틀목공의 경우 8.6%가 올라 1만 1,327원 상승했고, 건축목공의 경우 8.4%가 올라 1만 409원이 상승했으며, 철근공의 경우 7.4%가 올라 9,446원 상승했다. 그에 반해 조적공의 임금은 1.1% 하락해 1,369원 낮아졌다.

내년도 기능 인력 수급 불균형 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15년 국내 건설투자가 3.4% 증가한 209.47조원(2010년 불변가격)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건설 생산에 신소재 도입 또는 공법 개발 등으로 건설 기능인력의 수요는 2014년에 비해 약 1.6% 증가한 129만 7,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속되는 고령화 추세와 젊은 층의 진입 기피의 심화, 그리고 외국 인력에 의한 내국 인력 대체로 공급은 1.1% 줄어 109만 5,000명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 인력의 공급은 정부의 외국 인력 정책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의 과도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를 예방하고자 방문취업 동포(H-2)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취업등록제와 제3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건설업종 차원의 허용 인원을 규제하고 있다. 2014년에는 건설업취업등록제 도입 규모를 5만 5,000명, 그리고 고용허가제(E-9)는 2,350명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많은 불법 취업자가 존재해 건설 기능인력 수급과 임금의 변화에 영향을 줄 실질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임금 상승세 지속 예상

2015년에 기능 인력 수요는 약간 증가하나 국내

2015년 건설 기능인력 수요·공급 및 임금(8시간 기준) 전망

(단위 : 조원, %, 천명, 원)

구분	2013년			2014년(e)			2015년(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건설 투자	92.21	106.39	198.6	93.98	108.55	202.53	209.47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1,233	1,268	1,251	1,246	1,306	1,276	1,297
	공급	1,121	1,129	1,125	1,102	1,113	1,108	1,095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122,911	123,076	122,994	129,464	130,248	129,856	135,426
	비숙련 인력	83,975	84,166	84,071	86,686	87,569	87,128	89,541
증감률(% ,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	6.4	7.0	6.7	1.9	2.0	2.0	3.4	
건설 기능인력 (내국인)	수요	-2.7	-0.9	-1.8	1.1	3.0	2.0	1.6
	공급	-4.8	-3.9	-4.4	-1.7	-1.4	-1.6	-1.1
일일 임금 (8시간 기준)	숙련 인력	9.3	7.1	8.2	5.3	5.8	5.6	4.3
	비숙련 인력	4.0	3.3	3.7	3.2	4.0	3.6	2.8

주 : 1) 건설 투자는 2010년 불변가격 기준임.

2) 건설 기능인력 수급을 내국인으로 국한한 이유는 외국인의 경우 도입 규모 및 단속 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정책적 변수이기 때문임.

3) 일일 임금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숙련 인력 임금은 11개 직종(형틀목공·건축목공·비계공·조적공·미장공·방수공·타일공·콘크리트공·배관공·도장공·철근공)의 평균 임금이며, 비숙련 인력 임금은 보통 인부의 임금을 의미함.

4) 2014년 하반기와 2015년 수치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전망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능 인력 공급은 반대로 감소해 임금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금 상승의 모습은 내국 인력과 외국 인력에게서 약간 다르게 표출될 것으로 보인다. 내국인의 고령화로 숙련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직종(예컨대, 벽체 또는 천장 타일, 계단참 형틀 등)의 임금 상승이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고, 외국 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골조 분야의 외장 형틀목공이나 철근공 등의 임금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5년 숙련 인력의 평균 일일 임금은 전년 대비 4.3% 증가해 13만 5,426원이 되고, 비숙련 인력의 경우 전년 대비 2.8% 증가해 8만 9,541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외국 인력의

공급이 정부의 의도대로 통제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미 우리 건설 노동시장은 합법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와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 정도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취약해진 상태다.

또한 기능도는 내국인의 60% 내지 70% 정도인데 임금 수준은 80% 내지 90% 수준에 육박해 채산성이 많이 악화되고 품질도 크게 저하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 노동시장의 건전성과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한다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내국인 청년층의 진입 촉진과 숙련 인력 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CERIK